

지역 소식통

정읍시, 철통 방역으로
가금농장 시 발생 '0건'

정읍시는 지난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지난 15일 종료됐지만, 발생 지역의 방역대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차단 방역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전북자치도는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번 특별방역기간 동안 정읍전과 고부천 등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AI가 3건 검출됐으나 출입 통제와 긴급 정밀검사 농장 이동 제한 등 신속한 대응으로 농장 내 확산을 차단했다. 전국 34개 시·군에서 62건의 AI가 발생했음에도 정읍 지역 가금농장에서는 단 한 건의 발생도 없었다.

시는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오리 농가 동절기 사육 제한, 종오리 농장 통제초소·방역 전담관 운영, 거점소독시설 확대,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농장 주변·주요 도로 집중 소독 등 선제적 방역 조치가 주요했다고 분석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10주 완성 '순환
운동 과정' 선착순 모집

정읍시 보건소 샘골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역 주민의 민성 질환 예방과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순환운동 과정'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교육 과정은 참여자들이 여러 운동 구역을 순서대로 이동하며 동작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역마다 다른 종류의 운동을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전신을 사용하게 되며 개인별 체력 수준에 맞춰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교육은 다음 달부터 10주 동안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주 2회로 운영된다. 전문 지도자의 체계적인 관리가 동반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샘골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63-539-6998)로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무장기포 역사적 의미를 되새긴다

고창군,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기념주간' 운영... 내달 2일까지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정기백)이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25일부터 5월2일까지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기념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념주간은 '1894, 세상을 깨우다, 역사를 즐기다'를 슬로건으로 고창군 일원에서 열리며, 무장기포기념제를 비롯해 동학진격로 걷기, 동학농민혁명 관화작품 특별전시, 공연, 명사특강, 학술대회, 무장음성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기념제는 오는 25일 오전 9시 30분 공음면 무장기포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894년 4월25일(음력 3월 20일) 무장기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동학농민군의 자주와 광동의 정신을 기리는 자리로 마련된다.

행사에서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제19회 녹두대상 시상, 무장포고문 낭독, 동학농민군 진격로 걷기, 동학농민군 비발발 퍼포먼스 등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당시 농민군의 함성과 역사적 장면을 재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학생들과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학농민혁명의 후예' 대열을 추가하여 다양한 코스프레를 통해 무장기포가 민주주의의 시작임을 알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념제 이후에도 4월25일부터 5월2



일까지 고창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관화작품 특별전'이 열린다. 관화작가 박흥규의 작품 25점을 통해 '1894, 우리는 구수내로 간다'라는 주제로 동학농민군의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만날 수 있으며, 4월 27일에는 전시 오프닝 행사도 진행된다.

이어 28일에는 '타임슬립 고창 in 1894! 동학진격로 걷기 챌린지'가 무장기포지에서 신왕초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진행된다.

27일 전봉준 장군 동상공원에서 기념주간 특별공연이 열려 7080 음악과 전통 살풀이 공연 등 문화공연이 펼쳐지며, 4월 28일 고창문화의전당에서는 '녹두꽃 피는 사월, 다시 부르는 노래' 하우스 콘서트가 열려 동학의 의미를 음악으로 되새긴다.

29일에는 역사학자 심용환 작가를 초청해 '세상을 바꾸는 합성, 고창동

학농민혁명'이라는 주제로 명사특강이 진행되며, 같은 날 저녁에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제공한다.

또한 30일에는 유교문화체험관에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 전후 고창지역 사회 변동'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려 동학농민혁명이 지역사회에 미친 역사적 의미를 학술적으로 조명한다.

기념주간의 마지막 날인 5월 2일에는 (사)무장음성보존회(회장 김기욱) 주관으로 무장음성 일원에서 '제6회 무장음성 축제'가 개최된다. '1417 무장음성, 사람을 부른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무장연 관아와 음성(무장음성)의 역사적 가치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개치!티니핑 심얼롱 쇼' 등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공연이 열릴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고창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유공자 8명 시상 등

고창군과 고창군장애인복지협의회(회장 박현규)가 지난 20일 '고창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화합에 노력하기로 했다.

행사는 먼저 10시부터 식전 공연으로 시작되어 참석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장애인 대표 2명이 장애인 인권현장을 낭독하며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 그리고 차별 없는 사

회 구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이어 장애인 복지 향상과 권익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이 중 2명은 도지사 표창을, 6명은 군수 표창을 각각 수상하여,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았다.

이어 내빈들의 축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사회 실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어진 폐회 및 기념촬영에서는 참석자들이 어울려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뜻깊은 순간을 기록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재정·회계 분야 10명으로 구성

부안군의회(회장 박병태)는 21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김광수, 김원진 군의원을 비롯해 세무사 회계사, 전직 공무원 등 재정·회계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대표위원은 김광수 의원이 맡는다.

위원들은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2025회계연도 부안군 세입·세출 재정 전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부안=김석진기자



결산검사는 예산이 법과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재정 운영에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는 절차로, 검사 결과는 향후 부안군의회 제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 지급 추진

정읍시, 고유가 · 교환율 · 고물가로 인한 시민 생활부담 완화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정읍시가 고유가와 교환율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이다.

지급 금액은 소득 계층별로 차등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6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50만원,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게는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5월 8

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2차 신청 기간은 5월 18~7월 3일이며, 소득 하위 70% 대상자와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 정읍시사랑상품권으로 가능하며,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과 응용 프로그램(앱), 전화 자동 응답(ARS), 카카오톡, 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응용 프로그램(착, clak)을 통해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는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5·0) 순이며, 금요일부터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전담 전화상담실(콜센터, 063-539-8101~8102)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읍 지사협, 복지 사각지대 해소 '총력'

부안군 부안읍 지역사회보정협의체(민간위원장 김 정)는 지난 20일 부안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복지위기 알림망 활용 교육이 실시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체의 역할

과 기능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김정 민간위원장은 "협의체 중심으로 어려운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태 공공위원장은 "협의체 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